DEBUT · BEGINNING

13

A WINTER MAGIC



A WINTER MAGIC

Ferdinando Frega

GILLETTE: 겨울의 마법

이탈리아 국경 안의 따뜻한 지중해 도시 하나가 61년 동안 나를 품어 주었다. 자신의 진짜 차원을 찾아 헤매는 쉬지 못하는 몸, 그리고 이미 미국에 살고 있던 정신.

나의 미국. 성조기를 볼 때마다 나를 울게 하고, 불가능한 방식으로 심장 박동을 빨라지게 했던 미국. 언젠가 나를 맞아들여, 그 땅의 깊은 곳으로 나를 품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

바로 그날 나는 고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조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다. 노환이었다.

우리 사이에는 300킬로미터가 놓여 있었지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차에 올라 달렸다. 네 시간 뒤, 나는 도착했다.

집은 닫혀 있었다. 이웃 여자가 나를 보자마자 인사를 하고 커피 한잔하러 들어오라고 했다. 하지만 내 시간은 그런 데 쓸 시간이 아니었다.

나는 언제나 그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전형적인 Frega의 기질이다.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보다 언제나 낫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집의 냄새, 방들, 옷장들, 부엌, 그리고 내가 겨우 열두 살이던 1977년 겨울 동안 나와 함께해 준 그 벽난로의 냄새가 아직 났다. 떠난 모든 것은 더 이상 거기 없었다. 그러나 기억은 아직 거기 있었다.

본능이 나를 다락방으로 이끌었다.

작은 생쥐 두 마리가 나를 맞았다. 전혀 겁먹지 않은 채였다. 녀석들은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나를 무언가로 안내해야 하는 것처럼 거기 있었다.

녀석들은 나를 두꺼운 먼지에 덮인 채 닫혀 있는 판지 여행 가방으로 데려갔다.

호기심이 나를 떠밀어 가방을 열게 했다. 두 생쥐는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만족스러워 보였다.

안에서 나는 공책 한 권을 발견했다.

독특한 필체, 전부 대문자로 쓴, 틀림없는 필체. 그것은 나의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야기 하나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55년 2월 21일. 우연히도 정확히 내가 태어난 날이었다 — 연도만 달랐다. 아버지는 내가 세상에 오기 10년 전에 그 글을 쓰셨다.

아버지는 하느님께 편지를 쓰고 계셨다.

아버지는 가족을, 아내를, 그리고 아이들을 청하셨다. 그리고 특히 한 아이를. 사내아이를. 아버지는 그 아이를 당신의 아버지를 따라 Ferdinando라고 이름 지으실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격하게 울기 시작했다. 공책이 젖을까 봐 두려워서, 눈물 없이 흐느끼는 모드로 바꾸었다. 살면서 여자들 앞에서만 쓰던 그 모드 — 그들을 무너뜨리는 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 나의 속임수 가운데 하나. 나는 Frega다.

아들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묘사는 자세했다. 그리고 길게 끌 것 없이, 결국 나는 거기서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것은 내가 단 하나의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진 순간들 가운데 하나였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였는가?

나머지는 족보가 해 주었다. 그 질문과 함께, 나의 성과 함께, 나라는 존재와 함께, 오늘날 사람들은 언제나 같은 것을 묻기 때문이다.
Frega는 진짜인가, 아니면 사기꾼들인가? 둘 다 조금씩. 우리는 Frega 가문이다.

나의 아버지는 하느님께 아들을 청하셨다.
하느님은 그 청을 들어주셨다.
그러나 배송이 잘못되었다.
모델은 미국형이었다.
도착한 곳은 이탈리아였다.

Nando